

□No Matter, Paste□

<No Matter, Paste>는 우리 사회에서 잊고 있던 ‘흔들림’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전시에는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월 14일, 2019년 ‘무엇도 상관없다, 붙인다’를 주제로, 5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월 14일까지 3년째, 전시를 계속할 예정이다.



2019년은 우리 사회에서 잊고 있던 ‘흔들림’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전시에는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월 14일, 2019년 ‘무엇도 상관없다, 붙인다’를 주제로, 5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월 14일까지 3년째, 전시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 전시에는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월 14일, 2019년 ‘무엇도 상관없다, 붙인다’를 주제로, 5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월 14일까지 3년째, 전시를 계속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월 14일, 2019년 ‘무엇도 상관없다, 붙인다’를 주제로, 5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월 14일까지 3년째, 전시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 전시에는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월 14일, 2019년 ‘무엇도 상관없다, 붙인다’를 주제로, 5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월 14일까지 3년째, 전시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20년 동안의 예술적 여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4C11

82 x 42 cm
acrylic, fabric, paper print,
and varnish on canvas
2017

이승안

이승안은 2017년 4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4C11' 전시회에서 이 작품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이승안 특유의 다채로운 색채와 복잡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며,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통해 입체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작품은 2D 평면 위에 3D 효과를 연출한 것으로, 다양한 색상의 기하학적 형태와 질감의 층층이 겹쳐져 있다. 특히, 밝은 노란색과 주황색, 그리고 어두운 갈색과 검정색이 대조적으로 배치되어 시각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캔버스에 아크릴, 천, 종이, 그리고 바니시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의 질감과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승안

4C11



ה מפת 3D מפורטת, המצגת את כל שכונות העיר ומבנה הריבון. המפת מוצגת על פני שולחן עץ מואר, המאפשר לביקורים לראות את המפה בצורה ברורה ויזווי. המפת מוצגת גם עם מודל פיזי של מבנה הריבון, המאפשר לביקורים לראות את המבנה בצורה ברורה ויזווי. המפת מוצגת גם עם מודל פיזי של מבנה הריבון, המאפשר לביקורים לראות את המבנה בצורה ברורה ויזווי.

ה מפת מוצגת גם עם מודל פיזי של מבנה הריבון, המאפשר לביקורים לראות את המבנה בצורה ברורה ויזווי. המפת מוצגת גם עם מודל פיזי של מבנה הריבון, המאפשר לביקורים לראות את המבנה בצורה ברורה ויזווי. המפת מוצגת גם עם מודל פיזי של מבנה הריבון, המאפשר לביקורים לראות את המבנה בצורה ברורה ויזווי.



이 작품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 조각이다. 각 블록은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채워져 있으며, 서로 겹쳐져서 하나의 통일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며, 공간 전체를 채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추상적 표현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로, 색채와 형태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조각의 입체적 특성을 강조하여 공간감과 깊이감을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추상적 표현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로, 색채와 형태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조각의 입체적 특성을 강조하여 공간감과 깊이감을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추상적 표현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로, 색채와 형태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조각의 입체적 특성을 강조하여 공간감과 깊이감을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추상적 표현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로, 색채와 형태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조각의 입체적 특성을 강조하여 공간감과 깊이감을 전달하고 있다.

6월 16일 2024년 10월 10일 <A, B, C, D> 전시회.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추상적 표현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로, 색채와 형태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 □□□□ □□□□ □□ □□□ □□□□ □□□ □ □□□.

□ · □□ / □□□ (□□□□□)